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본격화

개정면 어울림문화센터 7일 착공

익산시, 밀그림 완성... 노을·습지·백제·숲·물 5가지 주제 정원 구성

익산시는 용안생태습지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한 밀그림을 완성하고 내년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 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한 용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농수산대학교 등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등 자문위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시는 약 68ha의 넓은 하천구역에 국내 최대 규모인 40여ha의 물역새 군락지로 알려진 용안생태습지를 생태계 보전과 이용자를 위한 정원 체험공간으로 조성을 계획해왔다. 지난 5월부터 용역을 착수해 중간보고회, 주민설명회, 의회 보고 등을 통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

을 수렴해 이번 최종보고에 담아 밀그림을 더욱 구체화했다. 최종보고회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은 총 68ha 규모로, 노을정원, 습지정원, 백제의정원, 숲정원, 물의정원 등 5가지 주제정원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관찰정원, 연꽃정원, 재배정원에 대한 설명과 또한 공간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넣어 다채로운 정원이 되도록 계획했다. 특히 급강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나뭇가지와 철새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 거대역새단지와 연계한 역사정원, 습지가 형성된 공간에는 생태계류 및 저류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단조로운 경관을 탈피하기 위해 주요 동선을 따라 다양한 종류의

그라스류 등을 식재하여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생태교육 공간을 구성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2028년까지 지방정원을 조성해,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용안생태습지 지방정원 조성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자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로 가는 발걸음"이라며 "최종보고회는 용안생태습지를 특색있고 차별화된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 향후 국가정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구체화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2025년 완공... 주민들 위한 문화복지 커뮤니티 공간 조성

군산시는 개정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동 증진을 위해 조성하는 주민문화복지시설, '어울림문화센터(복합청사)'를 오는 7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개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어울림문화센터'는 개정면 청사 건립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커뮤니티형 복합청사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 개정면 청사부지와 인근 부지를 포함한 부지면적 3,943㎡에 연면적

1,141㎡,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주요시설로는 1층 △면사무소(민원실, 상담실), △모성보호실, △복합카페, △공유주방, △건강강진실과 2층, △다목적실, △대강당 등이 있다. 완공 시기는 2025년 상반기로, 어울림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프로그램 및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공간과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공동주택 운영·관리 실태 감사 실시

군산시가 임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민원분쟁 예방 공동주택관리 투명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 감사를 실시했다. 시는 임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민원분쟁 예방,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운영·관리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전라북도 주관하에 관내 2개 단지와 시 주관으로 2개 단지 등 총 4개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임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민원분쟁 예방,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운영·관리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전라북도 주관하에 관내 2개 단지와 시 주관으로 2개 단지 등 총 4개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임주자 등의 권익 보호와 민원분쟁 예방,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운영·관리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전라북도 주관하에 관내 2개 단지와 시 주관으로 2개 단지 등 총 4개 단지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군산=김판곤 기자

감사결과 관리규약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등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관리자 및 자치기구의 운영자들에게 제정된 준수에 대한 인식 개선에 주안점을 두었다. 시는 앞으로도 감사 강화를 통해 각종 규정 위반을 바로잡고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정착과, 화합·상생의 공동체 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운영자의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사례를 이웃 단지에도 공유·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동체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공감 우선되는 친절 행정 필요"

내년도 예산안 심의 사업별 당위성 피력... 겨울철 소외 이웃 안전망 강화 등 당부

정현을 익산시장이 "안된다"는 말보다 공감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친절 행정을 강조했다. 정현을 시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꾸준한 교육과 분위기 쇄신으로 익산시 친절 행정이 자리잡고 있다"라며 "민원인을 처음 응대할 직원이 전화 불리기 대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실제 익산시는 사전 예고 없이 실시되는 전화·방문 점검을 통해 부서별 친절도를 확인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정 시장은 "친절 행정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혹시 바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도 안된다"는 말보다는 공감과 경청, 위로를 통해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려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또 이 자리에서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라며 "꼭 필요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예산안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겨울철 난방비와 계절형 실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복지 안전망 강화에 각별히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반려동물과 행복한 도시 조성 박차

반려동물 천만 시대, 익산시가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 시는 반려동물 놀이터와 반려인 센터 조성 등 시설을 확충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반려동물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앞장섰다. 한 열을 다송무지개매화마을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에는 반려견 크기에 따라 놀이터가 구분돼 다양한 놀이기구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동물등록 인식표 착용)과 13세 이상의 보호자가



마을에 조성 중이며 내년 초부터 운영 예정이다.(다송무지개매화마을 862-1123) 이와 함께 시는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경우, 병원비, 미용비, 보험가입비 등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익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반려가족이며, 지원금액은 마리당 15만원 한도(25만원 이상 사용 시)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어렵지 않아요"

군산시가 행정복지센터 내·외부 및 관공서, 공공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홍보 및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으로 연계되는 QR코드를 제작 배포했다. 제작된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하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 운영시간, 민원종류, 종류, 이용안내 등이 상세히 나오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으로 바로 연결되며 누구나 빠르고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3대(△군산시청, △나은동행정복지센터, △나은동행정복지센터, △수송동행정복지센터 3대, △조촌동행정복지센터, △흥남동행정복지

센터, △미성동행정복지센터, △중앙관공서, 공공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홍보 및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으로 연계되는 QR코드를 제작 배포했다. 제작된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식하면 무인민원발급기의 위치, 운영시간, 민원종류, 종류, 이용안내 등이 상세히 나오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으로 바로 연결되며 누구나 빠르고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시에서 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23대(△군산시청, △나은동행정복지센터, △나은동행정복지센터, △수송동행정복지센터 3대, △조촌동행정복지센터, △흥남동행정복지

지역 소식통

군산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주의 당부

군산시 보건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로 감염되며 한국에서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에(11월 그다음 해 4월) 더 자주 발생한다. 주요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등이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고령자, 5세 미만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의 고위험군에서는 4~6일 증상이 유지되고 심각한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안전한 음식 섭취 △오염된 표면 청소 및 소독하기 등이다. 또, 보건소는 연중 식중독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중앙동 문화공영 주차장 유료 전환

익산시는 이달부터 중앙동 문화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문화공영주차장(22면)은 2020년 12월 준공 후 무료로 운영되면서 인근 상권 활성화와 주차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됐다. 시는 최근 장기 주차와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주차장 내 불법 행위 등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민원이 계속 발생해 수익자 부담 원칙과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 주차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달부터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6,00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경차는 60%, 장애인·저공해 차량·두 자녀 이상 가정 등은 50% 감면이 적용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